

### 바다이야기

## ■ ‘도박의 바다’에 빠진 어드 30대 가장의 뒷늦은 한탄

# “책꽂이 터질것 같아 밥먹으려도 못가”

“죽을 맛이지.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악마에 홀린 기분이에요.”

박모(38·식당종업원·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지난해 3월 말 재미삼아 ‘바다이야기’ 게임을 시작

그는 누군가 ‘대박’을 터뜨렸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끌려 ‘혹시나’하고 시작했는데, 결국 ‘패가망신’(敗家亡身)했다고 울먹였다.

1년 4개월 여 만에 3천200여만원을 잃었다. 그동안 누나네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전세방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차곡차곡 모았던 돈이었다. 그중에는 친지들에게 조금씩 빌린 돈도 1천만원이 더 됐다. 그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박씨의 어깨를 짓눌렀다. 게임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한 달이 됐을 쯤, 박씨는 ‘대박’을 터뜨렸다.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가장 높은 배당액인 ‘고래’(250만원)에 당첨된 것. ‘고래’는 ‘바다이야기’ 게임에서 50~250만원의 돈을 획득할 수 있는 최고 배당액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했다. 큰 돈을 한꺼번에 거머쥔 박씨는 거의 매일 게임장에

배팅한 셈이다. ‘운이 다했나’ 싶어 마음이 약해질 때쯤이면, ‘○월○일 ○시○○분 배당금 250만원 당첨!’이라고 쓰인 문구가 그를 자극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딸(9)과 함께 찾아와 “그만 하라!”고 눈물로 하소연했으나, 듣지 않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마지막으로 12경 원림의 보증금 200만원까지 들어먹자 지난 17일 견디다못한 아내가 집을 나갔다. 하는 수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 앞에서 박씨가 괴로운 듯 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있다. /위력기자 jrwi@kwangju.co.kr

## 16개월만에 전셋돈·빌린 돈까지 3,200만원 날려 아내 가출에 딸 어머니집 맡겨...“악마에 홀렸었다”

들었다. 적어도 하루에 12시간, 밤을 하얗게 지낼 때가 많았다.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행운’이 터질 것 같아서 라면 등으로 때우거나 인근 식당에서 시켜 먹었다.

게임 버튼 위에 라이터나 재떨이 등을 올려 놓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했다.

박씨는 한 게임에 보통 100원 혹은 200원씩 자동으로 배팅하게 해놓고 한꺼번에 4~5대를 돌리곤 했다. 한 게임을 1시간 돌리면 현금 9만원이 드는데, 그는 시간당 36~45만원을

없이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형의 가게에 몸을 위탁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고 뒤늦게 후회했지만, 집나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변에도 수천만원이 넘는 큰 돈을 잃은 사람이 예닐곱은 더 있습니다. 승부 조작이 된 기계를 이기려한 제가 바보죠.”

한숨에 섞여 내뿜는 담배연기 속에 그의 내집미련 꿈도 사라져 버린듯 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성인오락실 행정소송 악용

“영업 계속하면 소송저도 손해없다” 특하면 제기

행정당국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성인 오락실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 시간을 버는 등 관련 법규를 악용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들어 광주시내 15개 오락실 업주가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자기구별로는 ▲동구 1건 ▲서구 2건 ▲남구 3건 ▲북구 8건 ▲광산구 1건 등이다. 이들은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해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소송 기간 동안 영업을 하려 한 것으로 각 구청은 보고 있다.

이처럼 게임업 업주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행정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늦추

려는 이유는 오락실의 유행 주기가 6~10개월로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새로 나온 게임이 유행할 때 쯤이면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법망을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업주들이 심판이나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이들은 기각, 혹은 패소판 결과나 나오기 전까지 2~3개월의 소송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광주시 남구 백운동 K게임장의 경우 지난 3월 게임기를 개·변조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업소는 지난 5월에도 또 다시 경품취급고시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란듯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민정기자 viola@

### 불법 도박게임 신고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형성 도박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 게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불법 게임물 제작·판매·유통한 게임업체 본사에 대한 제보는 최고 5천만원 ▲음성화된 PC도박장 등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만원 ▲도박게임과 사행행위를 방조한 업소에 대한 제보는 최고 100만원이다. /연합뉴스



수해 돕기 바자회 21일 오전 남북수해동포돕기 광주전남운동본부(상임대표 이명환)가 주관하는 ‘남북수해동포 돕기 바자회’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4일까지 수익금은 9월 중순께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고경석기자 ksgo@

### 광주 지하철역사 자전거 무료대여

광주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 역사에 자전거를 비치,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한다. 도시철도공사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내달 16일 발매식을 갖고 시민 ‘지하철-자전거가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우선 13개 역사에 총 100대의 자전거를 볼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더위 식히는 ‘깜짝 비’ 8월 22일 (음 7월 29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번개	24~30℃
대전	흐리고 비, 번개	25~30℃
대구	흐리고 비, 번개	24~28℃
부산	흐리고 비, 번개	24~29℃
서울	흐리고 비, 번개	24~28℃
인천	흐리고 비, 번개	24~29℃
전주	흐리고 비, 번개	23~30℃
경주	흐리고 비, 번개	23~30℃
충주	흐리고 비, 번개	23~29℃
청주	흐리고 비, 번개	23~29℃
대전	흐리고 비, 번개	23~30℃
대구	흐리고 비, 번개	24~31℃
부산	흐리고 비, 번개	24~31℃
인천	흐리고 비, 번개	22~30℃
서울	흐리고 비, 번개	23~30℃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1:37 썰물 < 06:58  
여수 밀물 < 08:19 썰물 < 02:27

▲해돋이 05:57	▲해질 19:13	▲달출 04:05	▲달입 18:38
------------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02-131 (광주시방기상청)

날짜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3/30	23/30	23/31	23/31	23/31	22/30

## 천둥·번개 동반 최고 80mm 비

### 일부지역 돌풍 조심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무더위를 식혀줄 ‘깜짝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시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에 20~5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다”고 21일 예보했다. 특히 이번 비는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곳에 따라 강한 돌풍도 예상된다.

23일 오전 남서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하루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가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處暑)인 23일쯤 그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이 1주 일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광주·전남교육청 교원·전문직 인사

광주 380명·전남 472명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초·중등 교원, 전문직 등 총 852명에 대해 내달 1일자로 승진·진보 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김용선 서일초 교장을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유아교육담당장학관으로, 이응일 초등교육과 장학관을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교육정보부장으로 발령하는 등 초·중등 교원 38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중등은 김용희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을 전남공업고등학교장으로, 중등교육과 기사 장학사를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소폭 인사가 이뤄졌다

전남도교육청은 과학실업교육과장에 김광호 실업교육담당장학관을, 교육정보화과장에 최경수 목포중앙초등학교 교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전문직과 교원 등 47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담양교육장에 문이종 전남교육과학연구원장, 강진교육장에 광영체 교육정보화과장, 장성교육장에 박성순 과학실업교육과장, 함평교육장에 이재운 강진교육과장, 구례교육장에 이경용 목포여중 교장 등이 전보 또는 승진 임용됐다. /최재호·황대중기자 lion@kwangju.co.kr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건강기능식품관리사 10월 22일 시험확립, 초창기시험으로 하득쉬워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시험 안내

1. 시험명: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시험

2. 시험일: 10월 22일 (월)

3. 시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4 (테헤란역) 서울대학교 서울캠퍼스 131호

4. 응시자격: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시험시간: 오전 9시~12시

6. 시험과목: 건강기능식품 일반론, 건강기능식품 특성론

7. 합격기준: 총점의 60% 이상

8. 시험료: 10만원

9. 합격증: 합격 후 발급

10. 등록금: 5만원 (과목당)

11. 문의처: 한국바이오협회 (02-6960-2100)